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8.(목) 11:00 < 1.19.(금) 조간 >	배포	2024. 1. 18.(목)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대상, 5년간 최대 5.5%p 이차보전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5.5%p를 지원하되, 실 부담금리는 최소 0.5% 이상으로 적용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담당자	주무관	이대호 (044-203-45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